

음악 교과서를 통해 본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악 활동*

- 한국 · 미국 · 독일의 1학년을 중심으로 -

주 대 창**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의 음악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악기들 및 교수법적 고려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목적을 갖는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음악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양한 악기들이 사용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및 독일의 초등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악기 활용 방식을 비교해 보면, 한국 및 미국의 경우 학생들이 다루는 악기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기악 활동을 포함하는 단원 역시 많지 않다. 특히 한국의 '즐거운 생활'은 통합 교과를 지향하지만 내용의 구성에서 단편적 악기 활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방법적인 면에서 음향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 다양한 반주 활동, 묘사음악의 창작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기악 활동, 기악 수업, 교실 악기, 초등음악교육, 음악교과교육

차 례

I. 서 론

II. 교실악기의 현황

1. 교실악기의 개념
2. 교과서에 등장하는 악기

III. 교실악기의 활용

1. 악기의 제시 방식
2. 수업의 구성

IV. 결 론

* 이 논문은 2004년도 광주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I. 서 론

초등학교 교육에서 음악 교과는 기초 보통 교육의 성격에 맞게 음악적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음악적 잠재력을 이끌어 내어 발달 단계에 맞는 문화 향유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능력을 갖게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것은 현행 교육과정에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1999).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슷한 교육적 경험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음악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명제 아래, 누구나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음악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일부 어린이들만을 염두에 두거나 특정 분야의 음악만을 활용하는 음악수업은 초등 교과 교육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음악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음악 체험을 장려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음악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기 쉬운 악기 활용 수업은 초등 음악교과의 취지를 살리는 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 악기를 활용하는 소위 ‘기악 활동’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악기를 다루는 기능적 측면에서 어린 학생들이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성인 기준의 난해한 기존 악기를 염두에 두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기악 활동이 별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또 악기를 다루는 기능을 음악수업의 주요 내용으로 보는 구태의연한 기악 수업관이 존재한다.

기악 활동에서 어린이들은 음악 생산자임과 동시에 향유자이다. 그들이 악기를 다루는 것은 그들 세계에서 곧 그들의 음악을 누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학년이 낮다고 하여 노래만 부르게 하는 방식은 음악 활동의 편식일 것이다. 나아가 정규 학교 음악교육의 시작 지점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이 시기의 음악 경험이 음악 관련 인지 능력 및 평생의 음악 향

유 능력에 각인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후의 학년에서 음악 수업을 구성하는 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상황은 실제적 자료의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초등 음악 교과서의 취지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음악적 사항들을 악기 연주와 함께 체험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초등 음악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어린이 악기들이 널리 개발되고 소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악기들이 교과서의 취지에 맞게 수업에서 활용되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음악 교과서의 구성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과서에 제시된 악기 및 악기 활용은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에게 나름의 길잡이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악 교과서들은 기악 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적 가늠 외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악활동을 이끌어 가는 교수법적 원리들을 알아보게 한다.

본 연구는 여러 나라의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초등학교 저학년 기악활동의 현상을 파악하여 활동 구성의 원리를 정리하고 교수법적 대안을 찾으려는 의도를 갖는다. 이를 위하여 학교 음악수업에서 상대적으로 기악 활동의 도입이 일찍 이루어진 서양의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은 음악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학교의 음악 교과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독일의 음악 교과서는 특히 교수법적 노하우의 축적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서 한국과 이들 나라의 1학년 음악 교과서들이 논의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저학년은 1·2학년을 포괄하는 것이 보통이나 분석 내용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그 범위를 초등학교 첫 학년에 한정시켰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교과서는 한국의 '즐거운 생활'과 미국의 *Share the Music*, 독일의 *RONDO*이다. 한국의 교과서는 음악, 미술 체육을 하나로 묶은 형태이나 여기에서는 음악 관련 부분만을 다룰 것이다. 미국 및 독일의 음악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고유한 제목(상표)을 가지고 있다. *Share the Music*은 *Music Connection*과 함께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 음악교과서이다. 대부분의 독일 음악교과서가 초등 또는 중등으로 양분되어 출

판되는 것과 다르게 *RONDO*는 초등학교 1학년용부터 고등학교용(10학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세트를 이루고 있다. 다른 음악교과서 시리즈들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되었다.

II. 교실악기의 현황

1. 교실악기의 개념

기본적 음악 향유를 위하여 가창 활동이나 음악작품의 듣기 활동 이외에 직접 악기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보는 기악활동은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초등 음악수업에 직접 접목시키게 한 교수법적 사고는 오르프(C. Orff)의 어린이 악기의 고안에서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Helms, 1994, p. 213). 악기 연주로 이루어지는 기초적 음악 체험은 학생들의 포괄적 음악능력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성인을 위한 악기와 음악에 어린이들을無理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악기와 음악을 어린이들에 맞추는 시각은 오르프 악기(Orff-Instruments)를 탄생시켰다. 오늘날 흔히 오르프 접근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실 기악 활동은 기초적 음악능력의 신장에 초점을 두고, 보통의 어린이들이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원래 일종의 실험적 방법으로서 기악 활동을 특히 신체움직임과 연계시켰던 이 교수법은 이후 초등학교에서의 음악교과가 행복한 인간 삶에 필요한 기본적 음악능력을 지향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Keetman; 조순이 역, 2002, p. 109).

20세기 후반 이후 한국의 초등 음악수업에서 다양한 악기들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낡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악활동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음악교과의 지향점이 강화되거나 음악수업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수업 전개 방식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악기 연주 실력의 향상에만 전념하는 교실 기악활동을 염두에 둘 수는 없다. 초등 음악수업에서 악기 연주 능력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전 인교육을 지향하는 초등 음악교육은 전문 음악인의 육성을 위한 기능 음악 교육과의 차별성 제시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음악교육은 자주 틀에 박힌 음악수업을 하게 만들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 필요한 학생들의 다양한 음악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

교육적 목적의 음악활동에 쓰이는 수업용 악기들은 현장에서 ‘어린이 악기’(또는 ‘아동 악기’), ‘수업 악기’, ‘기초 악기’, ‘오르프 악기’, ‘교실 악기’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어 왔다. 이 중 오르프 악기는 서양에서 가장 일반화된 용어이지만 서양 인명에서 유래한 것이어서 문화 차별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고, 또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아직 생소한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꼭 오르프와 연결시키지 않아도 교실 음악수업에서 활용된다는 의미로 ‘교실 악기’를 대표 용어로 사용한다. 여기에서 ‘교실’이라는 의미는 공간적 관점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교과수업을 위한 집단(학급 또는 모둠)이라는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즉, 교과로서의 음악수업에 사용되는 악기들 중 기존의 음악 전문가용 악기를 제외한 악기들을 교실악기로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오르프가 제안하여 생산 및 시판되는 음판악기(실로폰, 메탈로폰, 글로켄슈필), 리듬막대(울림막대), 나무토막북(우드블럭), 흔들이(셰이커) 종류, 탬버린 등의 손북 종류, 북 및 팀파니 종류,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물건 악기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원래 교실 수업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교실악기의 기능을 하는 리코더와 단소,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국악 타악기 등도 넓은 의미에서 교실 악기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 신체의 여러 부분을 타악기처럼 연주하는 신체악기는 그 활용 면에서 교실악기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으나, 악기를 연주자와 분리된 물건으로 볼 경우 제외된다. 이것은 목소리를 내는 성대(聲帶)를 악기로 볼 것인가와 같은 맥락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신체와 분리되어 악기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고찰의 대상을 삼았다.

2. 교과서에 등장하는 악기

1) '즐거운 생활'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악기 그룹은 타악기들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연주 능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 악기의 종류 및 출현 횟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악기의 활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먼저 한국의 1학년 '즐거운 생활'에는 모두 13종류의 악기가 등장한다. 그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연주하도록 안내되어 있는 것들이 8종류이며, 교사가 연주하거나 음악 듣기의 보조용으로 안내되어 있는 것이 5종류이다. 이외에 독립적 완성품으로서의 악기는 아니지만 악기 대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 또는 물건악기(악기용으로 개조된 것)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 수는 10여 종류에 이른다. 여기에는 악기의 본래적 역할인 소리 생산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어진 것들도 있다('즐거운 생활' 1학년 2학기, 64-65). 악기의 출현 쪽수는 음악·미술·체육의 통합교과서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다. 1·2학기를 통틀어 208쪽의 분량인데 43쪽(단원 기준이 아닌 실제 표시 기준임)에 걸쳐 악기가 나타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학생들이 직접 연주하는 악기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음악 듣기 참고용이거나 교사의 악기 연주를 나타낸 경우는 모두 4쪽에 불과하다.

<표 1> 한국 1학년 '즐거운 생활'의 악기들

분류	악기
학생 연주 악기(8종)	캐스터네츠, 리듬막대(윷짝), 소고, 트라이앵글, 탬버린, 큰북, 작은북, 실로폰(소프라노 글로켄슈필)
듣기용 참고 악기 또는 교사용 악기(5종)	태평소, 팽과리, 장구, 북, 징
물건 악기(13종)	빨래판, 방망이, 자, 연필, 냄비, 필통, 바가지, 컵, 페트병, 삼각자, 페트병 흔들이(마라카스), 깡통 봉고, 부채 소고

2) Share the Music

미국의 1학년 음악 교과서 *Share the Music*에는 모두 25종류의 악기가 나타난다. 여기에는 교과서 앞부분의 오케스트라 파트 사진으로 제시된 세부적 악기들이 감안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업의 실제에서는 더 많은 악기들이 언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 음악가용 악기들은 음악 듣기용 참고 자료로 제시된 것들이다. 학생들의 직접적 연주 활동을 통하여 소리를 내는 악기들은 모두 10종류로서 한국 교과서에서의 수와 비슷하다. 악기들의 출현 쪽수는 합하여 19쪽으로서 한국 교과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한국의 ‘즐거운 생활’은 앞에서 밝혔듯이 세 교과를 합한 상태에서 208쪽이므로, 음악교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순 평균으로 산출한다면 약 70쪽이 된다(208÷3). 이에 비하여 미국의 1학년 음악 교과서는 독립 음악 교과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 부분만 137쪽(1995년 판, 121쪽)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학생들의 악기 연주 활동을 안내하는 경우는 모두 5쪽에 불과하다. 빗방울과 천둥 묘사 단원의 나무토막북(wood block)과 손북(hand drum) 연주 그림 2쪽, 여러 가지 타악기 연주를 안내하는 단원의 타악기 그림 2쪽, 셈여림 체험을 위한 작은 북 및 북채 그림 1쪽이 있다.

<표 2> 미국 1학년 *Share the Music*의 악기들

분류	악기
학생 연주 악기(10종)	나무토막북, 손북, 봉고, 리듬막대, 탬버린, 귀로, 트라이앵글, 심벌*, 실로폰 또는 글로켄슈펠(음판악기), 작은북 * 심벌즈(cymbals)는 영어의 복수 형태이며, 한국어에서는 ‘심벌들’이라고 쓸 수 있다.
듣기용 참고 악기 또는 교사용 악기(18종, 오케스트라 사진 제외)	발리 북, 수자폰, 플루트, 트럼펫, 색소폰, 큰북, 바이올린, 백파이프, 작은북, 트럼본, 트럼펫, 피아노, 아프리카 북들, 튜바, 클라리넷, 기타야, 오케스트라(부분)

3) RONDO

초등학교 교실에서 연주되거나 소개되는 악기들의 수에 있어서 독일의

*RONDO*는 매우 두드러진다. 우선 학생들이 직접 연주하는 악기들이 모두 16종류로서 한국의 8종류, 미국의 9종류를 훨씬 상회한다. 여기에 교사 연주 또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악기를 합하면 30종류 이상의 악기가 소개되어 있다. 물건악기들은 모두 11종류가 제시되어 있다. 단순한 물건(악기) 제시까지를 합하여 13종류를 보이는 한국 교과서와 전체 수에서 유사하나, 실제 연주 방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독일 교과서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리코더와 바이올린을 가락악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코더는 여러 단원에서 간단한 가락을 연주하는 악기로 등장하며, 바이올린은 비록 한 단원에 나타나지만, 1학년 어린이가 연주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전통적 악기들을 배우는 어린이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악기들의 출현 횟수는 모두 34쪽으로 음악 교과서 전체가 내용 부분만 63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음악 교과서에 버금간다.

<표 3> 독일 1학년 *RONDO*의 악기들

분류	악기
학생 연주 악기(16종)	트라이앵글, 손북, 교실 팀파니, 리듬막대, 나무토막북(우드블럭), 심벌, 흔들이*(마라카스), 메탈로폰, 글로켄슈필, 실로폰, 리코더, 바이올린, 큰북, 방울다발, 방울나무, 강통흔들이(셰이커**) * 한글화된 용어이며, 유사한 악기의 총칭임. ** '셰이커'로 발음할 수 있으나 '셰이커'가 외국어 표기 규정에 따른 것임.
듣기용 참고 악기 또는 교사용 악기(15종, 실내 오케스트라 사진 제외)	트럼펫, 비올, 꼬부랑피리, 클라리넷, 피아노, 첼로, 플루트, 파곳, 밴조, 콘트라베이스, 기타, 피콜로(또는 파이페), 색소폰, 오르간, 바이올린(비올라), 실내 오케스트라
물건 악기(11종)	통 북, 병, 냄비 뚜껑, 강통, 고무호스, 냄비 통, 물건 흔들이, 비비기용 성냥갑, 줄 상자, 접힌 종이, 빗

4) 정리

한국의 ‘즐거운 생활’은 악기들이 도입된 수업 단원은 많지만 반복적 등장이 주류를 이룬다. 미국 교과서의 경우 일부 제한된 기악 활동 중심의 단위에서만 악기 활용 수업이 안내되어 있다. 음악수업에서 악기 활동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교과서는 독일의 *RONDO*이다. 독일의 교과서는 악기의 다양성 및 그 활용 횟수에서 두드러지며, 대부분의 음악수업을 악기 활동과 연계시키고 있다.

세 나라의 1학년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악기들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음악수업에서만 활용되는 악기가 캐스터네츠이다. 한국의 소고는 비록 한국의 전통악기에 속하지만 학생들의 기악활동에서 미국 및 독일의 ‘손북’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음악 교과서에만 의할 경우, 미국의 1학년 음악수업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악기가 봉고와 귀로이다. 한국과 미국의 1학년 음악 교과서에 나타나지만 독일의 1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보이지 않는 악기는 탬버린(딸랑이 포함)이다. 탬버린은 일반적으로 딸랑이가 있는 작은 손북으로 이해되지만, 북면이 없거나 어원적으로 볼 때 딸랑이가 없어도 탬버린으로 불릴 수 있다. 한국에서 딸랑이가 있는 것을 탬버린으로 분류하자면 바로 이 악기가 기악 활동을 강조한 독일 1학년 음악교과서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 대신 손북과 방울로 이것을 대신한다. 탬버린이 손북과 방울의 겸용으로 이해되므로 이것을 원래대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독일의 1학년 음악수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한국의 1학년 음악수업에서만 나타나지 않는 악기는 나무토막북(우드블럭)과 심벌, 그리고 실로폰(‘목금’)이다. 실로폰은 원래 목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뜻하나 한국에서는 소프라노 클로켄슈필이 실로폰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1학년 음악 교과서에 나타나지만 미국의 음악 교과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악기는 큰북이다. 그리고 독일의 1학년 음악수업에서만 관찰되는 악기들이 있다. 여기에는 교실 팀파니, 흔들이(마라카스), 메탈로폰(미국 교과서에 그림으로 제시된 음판악기가 실로폰 또는 클로켄슈필일 것이라는 가정 아래), 리코더, 바이올린, 방울, 방울나무, 깡통흔들이(셰이커)가 포함된다. 이것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4> 1학년 음악 교과서에 나타나는 학생 악기들

분류	공통	부분 공통		구별
'즐거운 생활'	리듬막대(윙작), 손북(소고), 트라이앵글, 글로켄슈필	탬버린, 작은북	큰북,	캐스터네츠
Share the Music		손북, 나무토막북, 심벌, (실로폰)	봉고, 귀로	
RONDO			교실 팀파니, 혼들이(마라카스), 메탈로폰, 리코더, 바이올린, 방울, 망울나무, 깡통혼들이(세이커)	

음악 교과서의 표지에 제시된 악기들도 초등학생들의 기악활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안내는 단원별 내용 구성에 반영된 것들도 있고, 그와 상관없이 넓은 시각에서 음악활동의 소개를 위해 제시된 것들도 있다. 한국의 1학년 '즐거운 생활'에는 이러한 의도적 단원 밖 기악활동 안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를테면 1학년 2학기의 교과서 표지에 교과서 안의 활동에서 쓰이는 악기들을 만화의 형태로 의인화하여 실었다. 이에 비하여 독일의 1/2학년 음악 교과서(표지 공용)의 표지에는 3명의 토끼 인형들이 실제 악기를 연주하는 중주 모습이 사진으로 실려 있다. 어떻게 악기를 연주하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안의 단원 전개에서 나타나지 않는 하모니카가 소개되어 있다(그림 1참조).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미국의 1학년 교과서가 가장 독특한 면을 보인다. 음악 교과서의 앞표지는 전 학년 모두에서 악기 연주의 사진을 실고 있다. 그리고 뒤표지에는 다른 학년들의 음악 교과서 표지들이 축소되어 실려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학년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악기 모습들을 접하게 된다. 앞 속표지 및 차례 부분에도 여러 가지 악기 사진들을 활용하여 편집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악기에 대한 친숙함과 상응하는 연주법(자세)들을 안내하고 있다. 1학년의 경우 튜바와 트라이앵글, 카바사, 기타, 글로켄슈필, 봉고, 리듬막대 사진이나 연주 모습이 실려 있다(그림 2 참조). 또 하

나 특이한 것은 이 교과서 시리즈의 뒤 속표지에 크로마하프(오토 하프)의 코드 버튼 그림과 건반 그림이 코드(크로마하프의 경우) 또는 음이름(건반의 경우)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음악수업에서 또는 교과수업 밖의 음악활동에서 이 악기가 자주 활용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림 1> 독일과 미국의 1학년 음악 교과서 표지



<그림 2> 미국 1학년 음악 교과서의 차례 편집 예

각 국의 교과서들에 소개되어 있는 악기들 중에는 악기들이 비록 다르지만 생산되는 소리가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는 악기들이 있다. 한국의 1학년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캐스터네츠는 미국과 독일의 나무토막북(우드블럭)과 음향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캐스터네츠의 평균적 질을 고려하면 나무토막북이 어린이들에게 훨씬 매력적인 악기일 수 있다. 작은북 역시 같은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손북 중에 다양한 크기가 있고 또 채를 사용하여 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 악기가 작은북의 음향 효과를 대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악기의 다양함 외에 가락 악기인 리코더가 많이 쓰이고 있음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종합적 기악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Ⅲ. 교실악기의 활용

1. 악기의 제시 방식

1) '즐거운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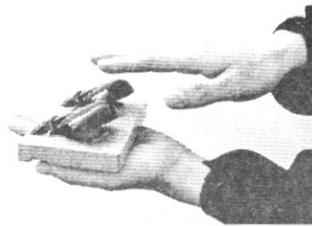
초등학교 1학년의 기악 활동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해당 악기들이 수업의 전개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활용되는 악기들의 제시 방식도 의미 있는 요소가 된다. 초등학교 1학년은 이제 막 공식적 학교 음악수업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의 악기 체험이 이후 전체 학교 음악수업의 기악활동에 연결될 수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맨 처음 소개되는 악기는 캐스터네츠이다. 이 악기의 도입은 손뼉 치기와 함께 이루어진다. 이 악기는 주로 박자치기에 활용되며, 이를 위한 안내는 박자 단위의 정간에 작은 악기 그림을 넣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악활동은 전체 1학년에 걸쳐 리듬막대, 소고,

트라이앵글, 탬버린 등으로 전이(轉移)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 즉, 초등학교 1학년의 음악수업에서 대부분의 교실악기 활용이 이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박수 치듯이 기본 박을 리듬악기로 따라 치는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악기의 종류와 그 제시 방식이 획일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 처음으로 다루어지는 악기가 왜 캐스터네츠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손뼉 치는 것처럼 양 손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한국의 교실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캐스터네츠는 교과서의 그림에 나타나듯이 고무줄로 연결된 간이 악기 형태여서 한 손에 들고 집게 잡듯이 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악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칠 수 있으나 안정성이 없어 불편하며 음향 또한 경쾌하지 않다. 굳이 손뼉 치는 것에 연결시킬 의도가 있다면 한손 캐스터네츠보다 받침 캐스터네츠가 나을 것이다(그림 3 참조).



[손잡이 캐스터네츠*]



[받침 캐스터네츠**]

* '자루 캐스터네츠'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주머니 형태의 자루로 오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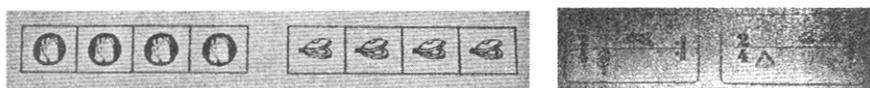
** '연주회/콘서트 캐스터네츠'라고 할 수 있으나 굳이 서양어식 표기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모든 악기가 다 연주회에 쓰일 수 있음.

<그림 3> 캐스터네츠의 여러 종류

악기 제시 못지않게 악기를 다루는 방법이 학생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된다. 악기 연주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습 내용으로 다룰 수 있으나 초등학교 1학년의 연령이나 교실악기의 성격을 감안할 때 되도록 우회적인 방법으로 연주법을 알려 주는 것이 권장된다. 앞장에서 이미 밝혔듯이 연주

능력의 육성이 아니라 기악 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의 실현이 음악교과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1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사진의 형태로 명확히 연주법을 안내한 경우는 1학년 2학기의 ‘어린 음악대’ 단원과 소프라노 글로켄슈필(‘실로폰’)로 가락을 창작하는 단원이다. 그리고 음악 듣기를 위한 참고용 악기 연주 소개(사진이나 그림 제시)는 매우 적은 수에 머문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이러한 악기들을 연주할지에 대한 안내는 거의 없다. ‘즐거운 생활’의 기악활동을 안내하는 방식은 상징화된 작은 악기 그림이 정간에 놓이거나 리듬 보표에 더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그림 3). 악기들의 수가 조금 확대된 경우에도 리듬 보표에 의해 기본 박의 흐름을 쫓아가는 악기 사용이 중심을 이루며, 그것이 어떻게 또는 어떤 음향으로 연주되어야 하는지는 교과서에 전반적으로 생략되어 있다. 연주 방법을 그나마 유추할 수 있는 경우는 분위기 또는 장면을 묘사하는 간접적 그림이 제시되어 있을 때이나 그 수도 교사의 모습까지 포함하여 3회 정도이다.



<그림 4> 한국 1학년 ‘즐거운 생활’의 박자치기

2) Share the Music

미국의 1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맨 처음 제시되는 악기는 발리 지역의 북이다. 이것은 박(beat)을 다루기 위한 음악 듣기 단원에 나타난다. 이러한 듣기 보조용 악기 제시는 미국의 1학년 음악교과에서 악기 등장과 관련하여 가장 큰 부분을 형성한다. 같은 분량의 지면을 활용한다면 악기 소개에서 가능한 한 연주법이 함께 드러나도록 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어린이들이 실제 악기를 연주해보는 활동은 세 단원이다. 그 중 하나는 비 소리를 내 보는 창작 단원이며(Share the Music, 48-49), 다른 하나는 여

러 가지 타악기들을 자유롭게 연주해 보게 하는 활동이고(*Share the Music*, 52-53), 또 다른 하나는 섬여림을 작은 북으로 쳐 보는 활동이다(*Share the Music*, 122). 이 가운데 학생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방식이 안내된 곳은 창작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 악기 연주 방식은 원숭이(또는 고릴라)들이 나무토막 북(우드블럭)과 손북(핸드드럼)을 연주하는 그림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그림 4).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해 보게 하는 단원은 악기에 대한 흥미와 친숙함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음악’을 만들어 가는 구체적 기악 활동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에 대한 후속적 악기 연주 활동이 없으며, 연주법에 대한 안내도 없다. 악기를 어떻게 연주할지는 교사의 지시에 따르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알아서 찾아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분적으로 내용이 보충된 개정판(2003년 판)에는 “봄의 손짓”(Signs of Spring) 단원에 동물들이 악기들을 연주하는 삽화가 첨가되었으나 대상(악기) 묘사가 만화의 수준이며, 봄의 분위기를 나타낼 뿐 기악 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1학년 음악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직접 악기를 다루며 활동하는 수업은 별로 안내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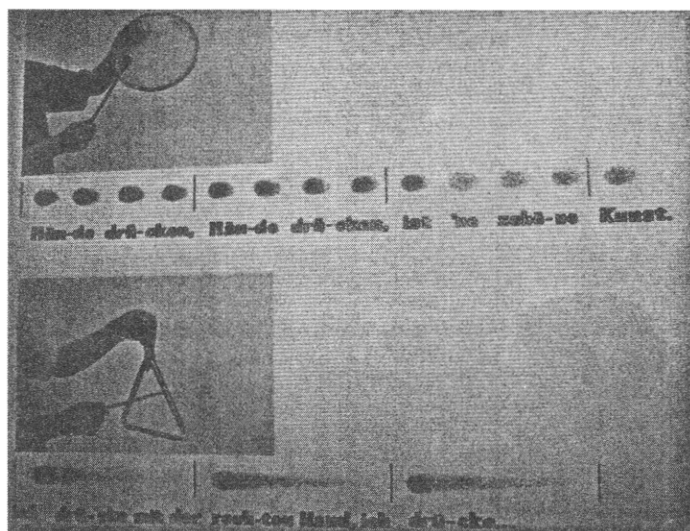


<그림 5> 미국 1학년 *Share the Music*의 연주법 제시

3) RONDO

한국과 미국의 1학년 음악교과서와 비교할 때 독일의 음악 교과서 *RONDO*에는 매우 체계적이고 강화된 기악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기악 활동의 횟수에서 비슷함을 보인 한국의 음악교과서와 비교하면 구별된 접근 방식을 읽을 수 있다.

맨 처음 도입되는 악기는 트라이앵글이다. 생산되는 음향이 경쾌하여 호기심 유발에 장점이 있으며 연주법 면에서 어린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 악기는 박자의 첫 박을 치는 데 활용되며, 이 활동은 제1단원의 제재곡을 노래하거나 들으면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길게 울리는 트라이앵글 소리가 한 마디의 가사 전체를 포괄하게 한 것이다. 이 활동은 이후의 단원에서 손북으로 연주하는 박자의 기본 박들과 연결된다. 길게 울리는 트라이앵글은 첫 박을 치고, 채로 치는 둔탁한 손북의 소리는 박자 안의 박들을 나타낸다(그림 6).



<그림 6> 독일 1학년 *RONDO*의 박자치기

한국의 경우 기호화 시킨 작은 악기 그림으로 음표를 대신하여 박자나 박들을 표시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악기 지시는 사진이나 그림으로 리듬 악보 앞에 위치시키고 연주할 구체적 사항은 소리 이미지로 안내하고 있다(그림 4와 6의 비교). 악기에 따른 박자나 박 또는 리듬 표시는 대체적으로 소리의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제시한다. 소리 이미지는 기호의 모양과 크기 및 색 등으로 구별한다(그림 7). 이러한 안내는 이후 교과서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교실악기가 제시될 때는 명확한 연주법 안내에 이어 마디 줄 또는 정간 안에 소리 이미지를 함께 표시해 주고 있다. 악기가 이미 친숙한 것이라면 기호화 시킨 그림으로 대신한다.



<그림 7> 악기에 따른 소리 이미지(RONDO 1)

독일의 1학년 음악 교과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악기 제시의 또 다른 방식은 해당 악기를 어린이들이 직접 연주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음악 듣기 활동의 보조 악보(일종의 도식 악보) 또는 연주 장면의 소개에 해당하는

지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직접 연주해야 하는 경우에도 노래의 반주인지, 노래 부분과 전주나 간주 또는 후주 등으로 삽입되는 연주인지, 청취하는 음악과 함께 연주되는 합주인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그림 8 참조).



<그림 8> 연주 활동의 성격이 분명한 안내

2. 수업의 구성

1) *Share the Music*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악기 연주가 음악수업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초등 음악수업에서의 기악 활동의 현실을 파악하는 중심 잣대가 된다. 위에서 이미 추측할 수 있었듯이 비교 대상인 세 나라의 음악 교과서 가운데 미국의 것이 기악 활동을 가장 적게 수용하고 있다. 악기의 소개는 대부분 음악 듣기의 부수적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악기 연주를 통한 단원의 구성은 단 3개에 그쳤다. 다시 말하면 영역별 통합을 통한 복합적 수업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다. 악기 활용 수업은 그 목적이 기악 활동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단원의 구성 자체가 음악적 개념에 의하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수단적 또는 배경적 요소가 되기 쉽다.

어린이들의 악기 연주를 전제하고 있는 위의 세 단원 가운데 하나는 창작 활동의 일환인데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기악 활동의 성격이 가장 강한 단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주 활동에 대한 안내가 매우 절제되어 있다.

빗방울 소리를 나무토막에서 만들어 보자.

Make the sound of raindrops on **woods**.

천둥의 소리를 북에서 만들어 보자.

Make the sound of thunder on **drums**.

(2쪽 구성, 바탕: 그림 4 참조)

구체적 기악활동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자제되어 있기는 여러 가지 타악기들을 접해보게 하는 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단원은 바로 앞에 음높이 학습에 대한 단원이 놓여 있다. 하지만 위의 창작 단원과 연계된 상태이다. 2쪽의 지면에 네 그룹의 악기들을 제시하고 연주해 보라는 지시만 있다 (그림 9). 그리고 2개의 듣기곡 제목(*Weave Me the Sunshine, Umi wa Hiroi na*)이 함께 실려 있다. 이 단원의 학습 안내는 다음과 같다.

단원 명: 무엇을 연주하려고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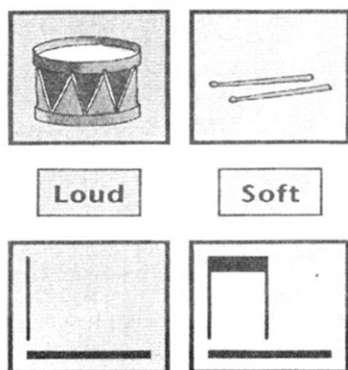
What Will You Play?

- “빛의 번쩍임”[천둥]에 더 많은 북들과 나무들을 연주해 보자.(Play more drums and woods with “a Flash of Lightning.”)
- 긁는 악기들과 흔드는 악기들을 연주해 보자.(Play **scrapers** and **shakers**.)
- 금속 악기들을 연주해 보자.(Play **metal** instruments.)



<그림 9> 미국 1학년 *Share the Music*의 악기 활동 단원

악기 연주를 수용하고 있는 또 다른 단원은 작은 북 치기이다. 소리의 셈여림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루어지면서 작은 북으로도 표현되게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음악을 만들어 가거나 음악적 완결성을 의도한 ‘음악’ 체험보다 음악적 개념에 중심을 둔 ‘음향’의 체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그림 10 참조).



“안내자를 따라서 센 소리로 그리고 여린 소리로 연주하시요.”
(*Share the Music*, 2003, p. 122)

<그림 10> 개념 중심의 작은북 연주 활동

실제 음악활동 중심의 수업 구성 비중이 낮은 것은 비단 기악활동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노래 부르거나 신체움직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반적

으로 비교 대상으로 삼은 미국의 1학년 음악 교과서에는 음악의 수용을 위한 개념적 접근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교과서의 차례 구성 뿐만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의 수업 안내가 전반적으로 음악적 개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각 단원의 Focus 참조, Teacher's Edition, 2003). 그래서 교과서 전체가 마치 음악 듣기 교과서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음의 높낮이, 리듬, 세기 등의 학습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많은 듣기용 곡들을 소개하고 있다. 악기에 대한 언급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악기의 소개가 있는 지면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특징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137쪽의 지면 가운데 악기가 등장하는 경우는 약 1/7(19쪽)에 불과하며, 이나마 대부분은 듣기 활동의 보조 지면으로 사용되고 있다(표 5, 회색 바탕 제외).

<표 5> 1학년 *Share the Music*의 악기 관련 단원

사용 악기	관련 활동(쪽)	용도	제시형태
발리 북	박(비트) 알기(4-5)	듣기 곡의 악기	악기 그림, 연주 사진
심벌, 트럼펫, 클라리넷, 색소폰, 플루트	크고 작은 소리(6)	청취 소리의 종류 표시	간단한 그림
바이올린	묘사 음악 '재단사와 꿈'(16-17)	줄거리에 등장하는 악기 제시	그림(만화)
수자폰, 백파이프, 작은북, 트럼본, 트럼펫, 큰북	음악의 작용 알기(25)	여러 가지 음악의 예 안내	연주 사진, 연주 그림
피아노	묘사 음악 '동물의 사육제'(42), '비가 내림'(46)	듣기 곡의 악기 제시	연주 그림(만화), 주 사진
나무토막북, 손북	비 소리 내기(48-49)	연주 모습 제시	연주 그림
손북, 봉고, 리듬막대, 나무토막북, 탬버린, 귀로, 트라이앵글, 심벌	악기 연주하기(52-53)	연주할 악기 제시	악기 사진
오케스트라(부분)	오케스트라 듣기(55)	듣기 곡의 악기 제시	연주 사진
실로폰 또는 글로켄슈필(음판악기)	음높이 진행의 변화(84)	악기에서의 음높이 안내	악기 그림
아프리카 북들	아프리카의 음악(108)	아프리카의 음악적 이미지 안내	연주 사진
플루트, 수자폰, 심벌, 클라리넷, 기타아	봄 음악(114-115)	계절의 분위기 묘사	삽화(동물 만화)
작은 북	센 리듬과 여린 리듬(122)	리듬 연주 악기 제시	악기 그림
오케스트라, 플루트, 튜바	오케스트라 연주회(136-137)	오케스트라 소개	연주 사진, 악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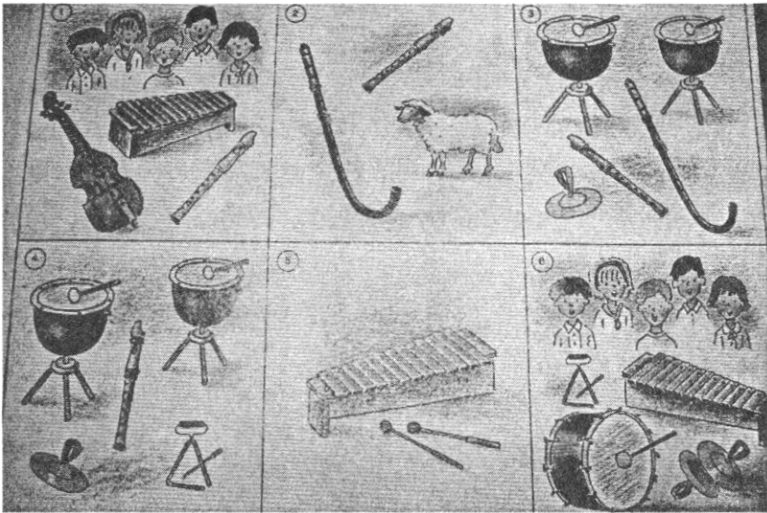
2) RONDO

악기 사용의 양적 분석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듯이 이 음악 교과서에는 기악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안내되고 있다. 하지만 악기 연주만으로 수업이 구성되는 소위 '순수' 기악 단원은 하나도 없다. 기악 중심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여겨지는 '악기들 연주해 보기' 단원조차 소리기호에 대한 공부를 곁들여서 기초적 기보법 학습 및 창작 활동과 융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다르게 말하자면 악기 연주를 하는 단원들은 많으나 단조롭게 악기 연주 기능을 익히는 수업 구성이 지양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전체 28단원에 걸쳐 악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4이 넘는 8개의 단원이 음악듣기 중심의 단원과 결합되어 있다. 이 가운데 3개의 단원은 실제 성인 연주의 모습을 싣고 있다. 이 단원들에게만 성인에 의해서 연주되는 음악이라는 인상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청취곡의 이해를 위한 악기 제시 방식으로 단원을 구성한 경우는 한 단원에 머물고,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활동을 겸하게 하고 있다.

이들 단원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들려주는 곡의 소리 출처를 나타내는 정도의 악기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음악, 음악, 음악[주변의 다양한 음악]' 단원은 교과서의 맨 끝에 위치한다. 거기에는 모두 10 장면의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즉, 10종류의 음악(①거리의 음악사, ②백화점이나 슈퍼마켓, ③마을 축제, ④댄스파티, ⑤텔레비전의 음악, ⑥식사 때의 배경음악, ⑦서커스 등의 공연에서의 음악, ⑧교회와 오르간 음악, ⑨파곳 4중주, ⑩실내 오케스트라)을 들려주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장소와 계기에 따라 다양한 음악이 있음을 알게 하는 전형적 듣기 단원이다. 다른 한 단원은 '산책'이라는 2중주인데 이 곡에 등장하는 악기들의 연주 장면을 각각 싣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두 사람의 산책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함께 안내되어 있다. 순수 음악듣기에 가까운 또 다른 한 단원은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에 나오는 '깊은 숲 속의 빠꾸기'이다. 빠꾸기 노래와 연계된 이 활동 안내에 클라리넷과 피아노의 2중주 사진을 싣고 있다. 이 단원에서도 신체움직임이 안내되고 있다.

이외에 4개의 음악듣기 위주의 단위에서는 신체 움직임과 더불어 교실 악기의 사용을 확인하게 하거나(해당 음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교실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림 11 참조), 음반 청취와 함께 따라 연주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곡들은 교실악기(오르프 악기)를 개발한 오르프와 케트만(G. Keetman)이 어린이를 위하여 작곡한 것들이다(케트만의 *Intrade*, 오르프와 케트만의 *Weihnachtsge-schichte*).



<그림 11> 교실악기가 함께 활용된 음악의 듣기 안내

이들 단위 이외의 기악 관련 단위들에서는 크게 보아 박자 및 리듬치기, 간단한 음정으로 반주하기, 전주·간주·후주 넣기, 묘사음악 만들기의 네 가지 방식이 안내되고 있다. 이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박자 및 리듬치기이다. 이 방식은 다른 방식들이 쓰일 때도 거의 항상 결합되어 나타난다.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는 박자 및 리듬치기는 전체 악곡의 기본 박들을 치는 초보적 단계에서부터 음악의 진행에 따라 이것들을 조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박자치기가 노래나 낭송에 첨가되는 경우 대개 가사의 음절이나 의성적 음절들을 곁들여 안내하고 있다. 기본 박들이 단순한 시계 초침의 소리와 같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서로 음향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리듬의 구성만이 아니라 음색을 포함한 음향의 종합적 특징을 음악적 의미 체계로 엮어내는 데는 악기의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1학년 음악 교과서에는 박자 단위의 기본 박들의 연주에도 이러한 음악적 효과(어법)의 체험을 위해 여러 가지 악기를 활용하고 있다(그림 12).



<그림 12> 음색층을 이루는 기본 박 치기

초등학교 1학년 기악활동에서 간단한 음정으로 반주하는 활동은 실로폰이나 글로켄슈필 등의 오르프 음판악기를 통해 가능하다. 사전의 음악 기능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도 음판(악기의 목재 또는 금속 박대)이 분리되는 실로폰이나 글로켄슈필에서는 쉽게 합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음판에 색 스티커를 붙여서 연주의 편의를 안내하기도 한다. 전주나 간주 또는 후주를 만드는 활동은 음악의 의미적 조형력을 생각하며 악기를 연주하게 하므로 창작이나 감상의 효과도 강화시킨다. 미리 주어진 예시 형태의 음형을 사용하더라도 연주에서 세밀한 배려를 해야만 연결되는 노래나 낭송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묘사음악 만들기는 앞의 여러 가지 기악활동의

방식이 종합된 형태이다. 얼른 보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이해시키기 어려운 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이 교과서에는 음악교재 구성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음악 활동에서의 연주 방법을 쉽게 이해하게 하고 있다. 이를테면 학습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체 연주 진행을 그림악보로 나타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는 학생들에게 활동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극적 연주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연주활동으로 얻어내려는 음악적 의미를 스스로 파악하게 한다.

가. '성 니콜라우스의 등장'



* 성 니콜라우스가 추운 날씨를 뚫고 나타나 선물들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리코더 전주에 다양한 목소리와 타악기들의 음향을 섞어 표현하게 하였다.

나. '풀밭 음악회'



* 관련 노래의 반복 부분 사이에 각 절의 다른 가사(아래 표에서 곤충 또는 꽃 그림 부분)를 어울리는 악기로 반주를 하다가 마지막에 즉흥적 중주로 이어지게 하였다.

<그림 13> 종합적 기악활동으로서의 묘사음악 만들기

3) '즐거운 생활'과의 비교 정리

앞에서 한국의 1학년 음악교과서에 해당하는 '즐거운 생활'은 다른 나라의

음악 교과서보다 먼저 고찰되었으나 본 장에서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뒤에 다루게 되었다. 앞의 두 외국 교과서들에 나타난 바를 한국의 교과서에 비추어 봄으로써 현장의 초등학교 1학년의 기악 활동 및 이를 위한 교재의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대안 제시는 여러 자료를 주체적 관점에서 비평적으로 살필 때 가능하다.

현행 1학년의 ‘즐거운 생활’은 전반적으로 기악활동을 거의 모든 음악수업에 연결시켜서 영역 통합적 안내를 하고 있다. 그리고 1학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난해한 기악활동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창조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세밀한 안내는 많지 않다. 우선 사용되는 악기가 단순하다. 특히 왜 특정 악기들만 사용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교육적 관점에서 일부러 캐스터네츠, 탬버린, 트라이앵글, 윗썩을 선호한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교실 악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현재의 상황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또 음악적으로 의미 있는 소리를 생산할 수 있는 악기들에 대한 정보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독일의 음악 교과서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와 기악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다.

미국 교과서에 의할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 기악활동 자체는 교과수업의 중심에 있지 않다. 그래서 기악활동에 대한 교수법적 접근의 양적 비율이 한국보다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음악듣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악기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적어도 확실하게 체험적 연주 활동을 안내하는 포괄적 단원이 몇 개 설정되어 있다. 독일의 음악교과서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악활동에 대한 시야를 넓혀 잡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에는 기악 활동에 대한 안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또 방법적으로 대개 단순 지시적 성격을 지닌다. 기악활동의 대부분이 그저 박자에 맞는 기본 박 치기이다. 이러한 안내는 박자 단위의 리듬 보표에 악기를 지시하는 형태(그림 2 참조)로 이루어지므로 음악이론의 학습에 준하는 느낌을 주기 쉽다. 좀 강화된 방식으로 리듬합주(반주)를 안내하는 단원(1-1 ‘여름 냇가’, 1-2 ‘파란 가

을 하늘’, ‘어린 음악대’, ‘정다운 이웃’)들이 몇 개 설정되어 있으나 전체 오선보 아래에 리듬 보표를 넣었다는 차이 외에 특별히 추가된 기악활동은 거의 없다. 중간에 프레이즈별로 연주 악기들이 바뀌는 경우는 있으나 결국 기본 박에 바탕을 둔 박자치기 형태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음악 교과서를 참고하면 초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도 복합적 기악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정이 있는 타악기들로 리듬 반주에 더하여 기초적 화음 반주를 안내할 수 있다. 전주와 간주 또는 후주의 구성은, 단순한 박자치기와 자유로운 묘사음향 만들기 사이에, 음악적으로 의미 있는 악기 소리의 생산이라는 과정적(過程的) 학습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저 음악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이면서도 서로 화합하는 음향을 만들어 내게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독일의 음악교과서에서 박자치기나 리듬치기를 할 때 음절을 곁들이게 하는 방식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준에서 쉽게 합주를 가능하게 한다. 즉, 악보에 의해 기계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구조화를 통해 의미적으로 소리를 구성해 낼 수 있다. 점이나 꼬리를 가진 타원 등의 기호로 타악기 소리의 이미지를 연주 리듬(박자)의 표시에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연주 행위 자체에 대한 지시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소리를 상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테면 리듬악기인 트라이앵글을 연주했을 때 어떤 음향이 날 것인지 또는 나야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함께 표시함으로써 개별 악기 연주 행위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함께 듣고 참여하며 만들어가는 기악활동을 우회적으로 안내하는 셈이다.

이러한 소리 탐색 및 소리 의미화 작업이 통합교과로서의 ‘즐거운 생활’에서 충분히 짐작되고 가능한데도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외형적 단순 조합이 아니라 내용 구성 및 수업 방법 면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습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다 적극적 통합이 필요하다. 다른 지각·운동 능력과 함께 소리를 가지고 의미를 만들고 그것을 추상화시키는 능력의 향상은 이후의 학년들에서 이루어질 기악 활동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음악 교과교육의 전체 위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IV. 결 론

초등학교 1학년의 시기는 정규 학교 음악수업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음악적 발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통적으로 이 시기에는 노래를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치우쳐 왔으나 20세기 중반 이후 전인교육의 기치 아래 포괄적 음악 체험 및 능력 신장을 염두에 둔 기악 활동이 음악교육자들의 관심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어린이 기악 활동의 중요성 및 당위성에 비하여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려는 구체적 대안은 많지 않다. 특히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한국의 실정에서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기악활동들은 큰 파급 효과를 지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의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악기 관련 활동의 형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하여 교수법적 유형을 정리해 내고자 하였다. 한국의 음악교육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미국과 독일의 초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들을 한국의 것과 연계시켜 분석·비교하였다. 세 나라의 대표적 교과서들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각 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 음악수업에서 소개되고 연주되는 악기들의 수와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미국의 교과서는 음악듣기를 중심으로 악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나 어린이들이 직접 연주하는 수업 전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한국의 교과서는 학생들의 연주 활동을 많이 안내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소개되는 악기의 수도 별로 많지 않다. 기악 활동의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1학년 교과서는 내용 및 방법적인 면에서 가장 다양하고 적극적이다.

한국의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교수법적 처방은 주로 박자 또는 리듬치기이며, 악기를 활용하여 나뭇의 음악적 의미를 만들게 하는 접근이 약하다. 사용되는 악기들의 선택에 있어서도 설득력 있는 음악교육적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실로폰 및 글로켄슈필 등의 음판악기들이 미국의 교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음악 활동 영역들 가운데 음감을 발달시키고 초등학교생들의 음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큰 장점을 가진 기악활동이 통합적 교과를 내세우며 작성된 ‘즐거운 생활’에서 보다 내실 있게 다

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의 1학년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음색창 만들기, 전주·간주·후주 만들기, 묘사음악 만들기, 리듬과 화성 결합하기 등은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수업에서 기악활동의 범위를 넓혀 줄 것이다. 악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수업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는 어린이들의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9).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1999). **즐거운 생활 1-1**.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1999). **즐거운 생활 1-2**.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1999). **즐거운 생활 2-1**.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1999). **즐거운 생활 2-2**.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05).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김애경 (2004). **전래동화를 활용한 즉흥표현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교대 교육대학원, 서울.
- 임미경, 장기범, 함희주 (2003).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예종.
- 조효임, 장기범, 이경언, 윤제상, 이동재 (1999). **오르프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 주대창 (2000). 음악성의 교육적 의미. **음악과 민족**, 19, 216-243.
- 주대창 (2003). 초등음악교과교육의 발달과 그 전문성. **음악교육**, 2, 114-142.
- 주대창 (2004). 통합적 음악수업의 구성원리 및 전개. **낭만음악**, 봄호, 23-55.
- 주대창, 민미식, 염현진, 이회영, 최은아 (2003). **대안 초등음악 교과서**. 미출판 자료집. 초등음악교육연구모임, 서울.
- Keller, K.-H.(Hrsg.) (2003). *RONDO 1/2*. Offenburg: Mildenberger Verlag.
- Beethoven, J. et al. (2000). *Music Connection*. Grade 1. New York: Scott Foresman.
- Campbell, L. et. al. (2003).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Multiple*

- Intelligences*. Boston: Pearson.
- Connors, A. F. (2004). *101 Rhythm Instrument Activities for Young Children*. Beltsville: Gryphone House.
- Bond, J. et al. (1995/2003). *Share the Music 1*. New York: Macmillan/McGraw-Hill.
- Helms, S. et al.(Hrsg.) (1994). *Neues Lexikon der Musikpädagogik*. Kassel: Gustav Bosse.
- Kälin, P. (1976). *Studien zur Situation der Musikerziehung anhand des Vergleichs von Resultaten*. Frankfurt am Main: Moritz Diesterweg.
- Keetman, G. (2002). 오르프 음악교육의 원리와 적용. 조순이 역. 서울: 도서출판 태성.
- Kraemer, R.-D. & Ruediger, W. (2001). *Ensemblespiel und Klassen-musizieren*. Augsburg: Wissner.
- MENC (1994). *National Standards for Arts Education*. VA: Reston.
- Merget, G. (1998). *Erziehen mit Musik*. Troisdorf: EINS.
- Redeker, R. (1996). *Orff goes Latin*. Horneburg: Persen.
- Orff, C. & Keetman, G. (1953) *Musik für Kinder*. Mainz: Schott.
- Small, C. (1998). *Musicking*. Middletown: Wesleyan Uni. Press.
- Wagner, M. (o. J.). *Klanggeschichten fuer Kinder*. Demand.

ABSTRACT

Instrumental Activities in Music Textbooks for the 1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 Focused on Korea, USA, and Germany -

Dae Chang Ju

Children who are attending the first grade in the elementary school have an great interest in music instruments. From a didactic point of view, it is very helpful to use various musical instruments in a music class. But instrumental activities in a elementary music class was negligent up to the middle of 21th century. Nowadays music teachers would introduce various music instruments, if they can know how to apply them to an music class of the first grade.

In order to provide an overview and develop effective teaching methods of instrumental instruction for the first grade in elementary schools, the researcher in this paper has investigated three representative music textbooks which are adopted each in Korea, USA(*Share the Music*), and Germany(*RONDO*).

The conclusion which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is as follows. Although the number of musical instruments introduced for musical activities of children in Korean music textbook is close to ten as in the American music textbook, the teaching methods are relatively monotonous. As compared to that, the German music textbook

constructively deals with instrumental instruction for music class. There is used musical imaginary for beating rhythms with Orff-instruments. Children would make practical application of music instruments to play accompaniment and create musical works. So, it is provided to diversify music instruments and activities which are used for music education in the first grade.

Keywords: instrumental activities, instrumental instruction, Orff-instruments, elementary music education, music class in public schools